

복통, 및 설사를 주소로 외래를 통하여 76년 8월 23일 내과에 입원 하였다. 입원 당시 이학적 검사에서는 하복부에 경도의 압통이 있었으며, 간의 변연부가 조금 촉진 되었다.

입원 3일째 실시한 간 기능검사에서는 SGOT가 119 unit, SGPT가 57 unit로 각기 조금씩 상승되었고 alkaline phosphatase 역시 6.5 Bodanski unit로 약간 상승되어 있었다. 간스캔소견을 보면 약간 간이 증대되어 있고, 미만성이고 불규칙한 "얼룩"을 나타냈으며 사장이 약간 증대되어 있어, 만성활동성간염을 의심할 수 있었다.

<증례 3> 송○섭, 32세된 남자로 약 20일간의 고열과 하복부 통증 및 복부 팽배를 주소로 76년 7월 7일 외래를 통해 내과에 입원 하였다. 입원 당시의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상복부에 압통을 동반한 종괴가 촉진되어 비장의 증대를 의심할 수 있었다. 입원 3일째 시행한 Widal 검사에서 1:640으로 나타났으며 혈색소(Hb) 8.0 gm, Ht 25%. 백혈구 수가 4600으로 각기 감소되어 있었고 간 기능검사는 정상으로 나타났다. 간 스캔소견을 보면 간이 약간 증대되어 있고 미만성의 "얼룩"과 심한 비장종대를 보이고 있어 문맥압 상승을 동반한 간 경화증을 생각할 수 있었다.

15. 肝走査上 門脈部位 결손의 의의

Significance of Porta Hepatis Defect on Liver Scan

서울醫大 內科

金三溶 · 金明德 · 李民浩 · 金丁龍 · 高昌舜

서울醫大 放射線科

河 星 煥 · 韓 萬 靑

肝走査上 문맥부위의 결손은 정상 범위일수도 있고 간담도 질환에 의할 수도 있어서 그 의의를 해석하기 힘든 점이 많다.

임상적으로 폐쇄성 황달시 담도의 확장에 따른 결손을 보이는 경우가 중요하겠다. 간주사상 문맥부위 결손의 임상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서울의대부속병원에 입원후 간 침생검과 외과적 수술에 의해 병리가 확인된 45례와 임상적 진단으로 간 및 담도의 질환이 없다고 인정되는 16례를 분류해 보았다. 45례중 35례는 percutaneous transhepatic cholangiography를 시행하였던 환자였다.

즉 폐쇄성 황달이 있으면서 P.T.C.를 시행하였던

68례중에서 간주사상의 결손을 보인 경우인 51.4%에 해당하는 환자였다.

나머지는 10례는 간침생검으로 그 병리를 확인하였던 경우였다.

결손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간주사상 간의 하단의 연속면과 문맥부위가 후자의 함몰에 의해 불연속적이거나, 연속적이라도 상당한 밀도의 감소(decreased uptake)를 보이는 경우로 하였다.

1) 총 61례 중 57.3%인 35례에서 common bile duct 및 담도를 침범하고 있는 질환이었으며,

2) 주로 간장을 병소로 하는 경우가 10례로 만성간염 5례, 간경변증 3례, 간농양 및 fulminant hepatitis가 각 1례였었다.

3) 간·담도계의 이상 없이 관련되지 않는 질환이 16례로 24.6%인 바 이는 임상적 진단에 의한 것이다.

4) P.T.C.와 그후 수술에 의한 폐쇄성 황달이 확인된 68례중 간 문맥 부위의 결손이 있었던 것은 전술한 바대로 51.4%인 35례였으며, 이 두 경우에서 혈청 bilirubin, alkaline phosphatase의 상승을 비교했던 바 이들의 상승과 문맥 결손의 유무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간주사상 정상이었던 군에서 bilirubin은 1.5~18 mg%, alkaline phosphatase는 5.8~22 U의 범위였고, 간주사상의 결손이 있었던 군에서는 bilirubin이 1.5~36 mg%, alkaline phosphatase가 0.5~23 U의 범위였다.

16. 急性 및 電擊性 肝炎의 肝 Scintigram에 關한 研究

Studies on Liver Scintigram in Acute & Fulminant Hepatitis

釜山醫大 內科

全壽一 · 劉邦鉉

1962년 10월以後 1977년 4월까지 約 15年間 釜山大學病院 內科病棟 入院患者中 臨床像, 化學的 肝機能檢査所見, 免疫學的檢査 및 肝生檢 등으로 診斷된 急性 virus 肝炎 64例 및 電擊性肝炎 20例 等에 對하여 colloidal ¹⁹⁸Au를 利用한 肝走査를 施行하여 肝像變化 및 脾像出現等을 觀察하였으며 이 肝走査所見과 臨床像과의 相互關係를 究明하여 經過에 따라 肝走査를 反復實施하고 그 變化를 追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急性 virus 肝炎의 肝走査上 肝像變化로서 被檢

例 64例中 肝肥大例 52例(81.2%) 및 正常大 12例(18.8%)를 보였으며 電擊性肝炎 에서는 被檢例 20例中 肝萎縮型 16例(80.9%) 그리고 肝肥大例 및 正常大가 各 2例(10.0%)를 보였다.

2) 急性 virus 肝炎의 肝走査上 脾像出現을 보되 被檢例 64例中 33例(51.6%)에서 그리고 電擊性肝炎에서 被檢例 20例中 14例(70.0%)에서 各各 輕度の 脾像出現을 볼 수 있었다.

3) 肝走査所見과 臨床像과의 相互關係를 보되 急性 virus 肝炎 64例中 觸知肝 45例(70.3%)인데 肝走査上 肝像肥大는 53例(83.9%)의 높은 頻度を 보였으며, 電擊性肝炎 20例中 觸知肝 4例(20.0%)인데 肝像肥大는 6例(30.0%)를 보였다. 急性 virus 肝炎 64例中 觸知脾는 6例(11.1%)인데 肝走査上 脾像出現은 33例(51.6%)의 높은 頻度を 보였고 電擊性肝炎 20例中 觸知肝 2例(10.0%)의 低率이었는데 肝走査上 脾像出現은 12例(60.6%)의 높은 頻度を 보였다.

4) 經時的 肝走査(serial scanning)를 實施한 結果 急性 virus 肝炎 에서는 入院後 5日~7日 사이에 肝肥大像의 減退를 보이고 電擊性肝炎에서는 入院後 7日~10日 사이에 肝萎縮像의 恢復을 보였다. 그리고 急性 virus 肝炎 및 電擊性 肝炎에서 認定된 脾像出現이 入院後 9日~10日 사이에 그 程度가 減退됨을 볼 수 있었다.

5) 急性 virus 肝炎 및 電擊性肝炎에 있어서 上述한 肝走査所見은 診斷意義를 示唆할뿐 아니라 治療 및 豫後判定에도 매우 有用함을 立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7. 간 주사상의 간문 결손상에 관한 분석고찰

연세의대 방사선과

김귀연 · 조은구 · 박창윤 · 최병숙

肝走査는 간장 자체가 형태학적으로 다양한 변형을 갖고 있고 또한 肝門, 담낭, 간정맥, 척추등 여러 장기들이 중첩되어 있을 뿐 아니라 scintiscan defect의 비특이성 때문에 아직도 병소의 객관적 진단에는 많은 장애가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저자들은 간 주위 외연의 불규칙한 양상이나 정면상 혹은 측면상 중 어느 한쪽 상에서만 발견되는 하나의 결손상을 대했을 때 판독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었고 특히 그러한 결손상이 肝門 주위에서 나타났을 때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변형 이외에도 병변의 다양성 때문에 자칫 오진을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McAfee 등은 肝門 결손상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변형 이외에도 전이된 암, 담도나 췌장의 악성 종양이 직접 침습한 경우, 원발성 간암, 그밖에 간장외의 병변으로 담낭 팽만에 의한 외인성 압력, 간하부농양 등을 지적한 바 있고 그 후 최근에 이르러 Koenigberg와 Beauchamp는 바터이스성 간염을, McClelland는 간경화증과 같은 간 실질 질환 까지도 이 부위에 결손상을 보여줄 수 있는 병변임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간문주위의 결손상을 해독하는데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1976년 1월 1일부터 1977년 3월 31일까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동위원소실에서 실시된 간 주사상중 간문주위의 결손상을 암시했던 167例의 임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병리학 소견 및 수술에 의해 확진된 37例를 중심으로 그 연관성을 고찰 하였고, 결손상에 대한 병리진단은 되지 않았으나 임상소견 및 생검으로 원발성 암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전이로 추측되는 18例, ERCP 및 PTC로 담도 및 췌장의 병변을 제시했던 7例등 총 62例의 간 주사상을 비교 관찰 하고 주관성을 피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 병리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결손상을 원인별로 더 별하면 정상이 1例, 간 질환이 15例였고 담도계 및 췌장 기타가 21例로서 간 이외의 병변이 56.7%로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전이된 암으로 생각되는 22例중 원발성 부위로선 위장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대장, 폐, 직장의 순이었다.

3) 기대하지 않았던 담낭 병변을 보여준 6例에선 Rectilinear scan의 전면상 보다 측면상이 더 의의가 있었다.

4) 간장 기능 검사 소견과는 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18. 간 디스토마의 스캔소견

Radionuclide Diagnosis of Clonorchiasis

가톨릭醫大 방사선과

朴龍輝 · 金禎鎭 · 金春烈 · 朴漢圭

간 디스토마는 동남 아시아에 널리 분포되는 풍토병의 하나로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